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다중매개효과

이형하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he Effect of Income Status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and Disabled Persons: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Hyoung-Ha Le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1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와 삶의 만족 사이에 우울과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는 우울($B=.241, p<.001$), 사회적 지지($B=-.167, p<.001$) 및 삶의 만족($B=-.277,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가 삶의 만족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셋째,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와 삶의 만족 사이에 우울과 사회적 지지가 다중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장년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수준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소득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년 장애인의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우울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개입과 사회적 지지망의 확대가 필요하다.

주제어 : 중장년 장애인, 소득지위, 우울,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 한국복지패널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whether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income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using data from the 15th year of the Korea Welfare Panel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income status of the middle-aged and disabled was depressed($B=.241, p<.001$), social support($B=-.167, p<.001$), and life satisfaction($B=-.277, p<.001$) was confirmed to have a direct effect.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was verified on the influence between the income status of middle-aged and disabled people between life satisfaction. Third, it was confirmed that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had a multi-mediating effect between the income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and disabled people. Therefore, an income support system that supports middle-aged and disabled people to live at an appropriate level should be prepared. In addi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and disabled people, it is necessary to intervene in mental health support services that can actively cope with depression and to expand the social support network.

Key Words : Middled_aged and Disabled Persons, Income level, Depression,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Corresponding Author : Hyoung-Ha Lee(hhle62@kwu.ac.kr)

Received August 24, 2021

Accepted November 20, 2021

Revised October 13, 2021

Published November 28, 2021

1. 서론

최근 생애주기에서 중장년기가 차지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짐에 따라 개인의 인생에서 중장년 시기에 의미 있는 삶을 꾸려나가는 일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특히, 중장년기는 인생 최고의 절정기임과 동시에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여겨지는 시기이다[1,2]. 중장년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적 노화와 더불어 외모상의 노화를 동반한 신체적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 쉽게 우울이나 무기력을 경험할 수 있다[1,3]. 중장년기 시기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자신의 노후준비 등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인 은퇴 압력을 많이 받게 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에서도 중장년 지원 정책은 고용과 관련된 정책이 대부분이며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정책 대상자인 중장년을 신중년, 55+ 현역으로 개념화하여 고용안정, 재취업, 퇴직 후 사회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4]. 2019년 기준 중장년(40세~64세) 행정통계[5]에 따르면 중장년층 인구는 1,997만 9천 명으로 총 인구의 40.0% 차지하며, 전년보다 15만 6천 명(0.8%) 증가하였고, 등록취업자는 1,276만 명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하였다.

중장년기의 연령에 대해서 진주영과 하규수[6], 장은주[5]는 중장년층을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여 40세에서 60세 사이로 보았으며, 이준희[7], 임선미[9] 등은 우리나라가 지각하는 노인연령 기준을 70세로 보는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보고서(2012)에 따라 중장년층을 30에서 69세로 보았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중장년의 연령구간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상 40대 중반이후 급격한 퇴직과 은퇴 후에도 여전히 노동시장 주변부에 일을 해야 하는 초기노인이 존재함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45세이상 65세이하로 정의하였다.

비장애인 중장년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중장년의 경우도 생애발달 주기상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욕구를 지닌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년 장애인의 삶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장애로 인해 지역사회와 노동시장 등의 여러 방면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다중적으로 경험하는 중장년 장애인의 삶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즉,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구[10-14], 장애인의 연령단계별 취업

결정 요인 연구[6,15],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16] 등이 있다.

한편, 장애인가구의 경우 비장애인가구와 비교해 2018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 비율은 전체수급가구 1,165,175가구 중 18.1%, 장애인가구의 가구소득은 1,000~3,000만 원 미만 36.4%, 3,000~5,000만 원 미만 19.3%, 1,000만 원 미만 15.6% 순이고, 1,000만 원 미만 소득 비중은 전체 가구가 8.6%인 반면, 장애인 가구는 약 2배 수준인 15.6%로 나타났다[17]. 이를 통해 중장년 장애인의 자산수준은 중장년 비장애인 자산수준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중장년 장애인의 자산수준은 우울,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등 그들의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장애인의 우울에 관한 연구[18]에서는 연구대상자의 64.1%가 우울증을 나타내 우울은 중요하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자신의 부정적 자기인식, 사회적 지지의 부족 등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중고령 장애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 가족의 지지와 친구 및 지인 지지 요인의 중요성을 밝힌 연구[19]도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0,21]에서 소득이 높은 경우 우울의 초기값이 낮았고, 소득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 감소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 사이에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22]결과, 장애로 인한 차별 및 소외감으로 인하여 우울감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족과 친구 등 주변으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감은 낮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이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구주의 장애여부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산수준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가 있음을 주장한 선행연구[23]도 있다. 또한, 장애인의 가구소득과 취업여부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중단연구[24]에서 장애인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상태일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이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연구[25]도 장애인의 삶의 만족에 경제적인 요인의 영향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기간 장애인으로 살아 온

경우, 15년에서 20년 정도 빠른 조기노화를 경험한다고 보고된다[26].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 장애와 노화라는 다중적 위험상황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더욱 낮게 평가 되고, 심지어 부정되는 이중적 차별에 처해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이 고연령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관계망의 위축경험에 대한 연구결과[27] 부모사망 이후의 관계망이 극도로 위축되거나 축소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중장년 장애인에 관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삶의 만족에 미치는 개별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들로 제한되어 있지만, 본 연구는 경로분석을 통해 중장년 장애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차별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일반가구, 저소득가구)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장년 장애인의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연구질문1.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는 우울,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질문2.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와 삶의 만족 사이에 우울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 연구질문3.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와 삶의 만족 사이에 사회적 지지는 매개역할을 하는가?
- 연구질문4.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와 삶의 만족 사이에 우울과 사회적 지지는 다중매개 역할을 하는가?
- 연구질문5.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와 삶의 만족 사이에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와의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WEPS)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KOWEPS)은 1차조사 당시 원표본 7,072가구였으며, 원표본 가구유지율은 5차년도 80.3%, 10차년도 67.31%, 15차년도 54.65%를 유지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공개된 15차년도(2020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15차년도 패널자료(가구원용) 전체 6,029가주용 데이터 중에서 중장년 장애인 380명이었다. 조사기준 년도가 2019년 12월 31일(2019년 1년간 장애인 있는 경우)인 관계로, 중장년 장애인은 1953년부터 1974년까지를 태어난 기준으로 설정해 데이터를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장애종류에 지체장애부터 간질장애까지 15가지 유형에 응답한 경우와 균등화소득구분에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에 응답한 데이터를 선별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국내의 중년 장애인 대상 연구들은 대개 ‘중고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령’은 중년과 노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포함시킨 45세(또는 50세)이상으로 정의[28,29]되거나, 45세이상 65세 이하로 정의 [14,30,31] 등 연구마다 상이하게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의 연령별 시기를 45세이상 65세 이하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2.2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2.2.1 연구모형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질문을 검증하기 위해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와 동시에 우울과 사회적 지지가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와 삶의 만족 사이에서 다중매개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연구모형을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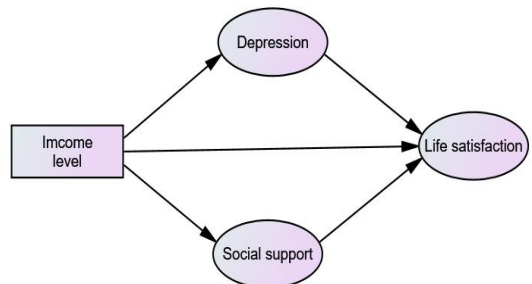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2 연구가설

연구가설1.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가 저소득가구일수록 우울이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2.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가 저소득가구

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아질 것이다.

연구가설3.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가 저소득일수록 삶의 만족이 낮아질 것이다.

연구가설4. 중장년 장애인의 우울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은 낮아질 것이다.

연구가설5. 중장년 장애인의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은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6.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는 우울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7.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는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8.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와 삶의 만족 사이에서 우울과 사회적 지지는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측정도구

2.3.1 소득지위

소득지위는 균등화소득에 따른 가구구분을 사용하였다. 즉, 공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경상소득의 중위 60% 기준으로 60% 미만은 저소득가구, 60% 이상은 일반가구로 구분된다. 균등화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으로 구성되어 가구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한다.

2.3.2. 삶의 만족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 척도는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조사자료에서 추출한 8개 영역의 문항을 총합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8개 영역의 문항은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 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전반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일수록 삶의 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24로 나타났다.

2.3.3 우울

본 연구의 매개변수 중 하나인 우울 척도는 CESD-D 활용하였다. CESD-D 척도는 Radloff[32]에 의해 표준화된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전점구와 이민규[33]에 의해 개발된 한국판 우울척도 11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러한 우울 척도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의 11개 항목에 대해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즉, 식욕이 없음, 비교적 잘 지냄(역문항), 상당히 우울,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짐, 잠을 설침, 외로움, 불만 없이 생활(역문항),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 마음이 슬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극히 드물다(1주일에 1일 미만)=1점부터 '대부분 그랬다(1주일에 5일 이상)=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일수록 우울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987로 나타났다.

2.3.4 사회적지지

본 연구의 매개변수 중 또 다른 하나인 사회적 지지 척도는 Zimer, Dahlem, Zimet & Farley[34]이 개발한 다면적 척도(MSPP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최희수[35]가 세 가지 체계인 가족, 친척, 친구와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각각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10개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사회적지지 척도 10문항의 구성을 살펴보면, "나의 가족은 진정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애씀", "위급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음", "내 문제에 대해 나는 친구나 주변사람에게 이야기 할 수 있음" 등이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918로 나타났다.

주요 척도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Description of the main scale

Variables		Variables value
Life satisfaction	health	1 = not at all 2= not 3 = normal 4= yes 5 = very much
	family income	
	residential environment	
	family relations	
	job	
	social acquaintance	
	leisure life	
	overall satisfaction	
Income status	normal-income households	0= normal-income households
	low-income households	1= low-income households

Depression	no appetite	1 = extremely rare 2 = occasionally 3= often 4= most of the time
	got along relatively well (R)	
	quite depressed	
	everything feels hard	
	falling asleep	
	loneliness	
	living without complaints (R)	
	feeling like people are treating you coldly	
	I was sad	
	I feel like people hate me	
I don't know what to do		
Social support	my family really tries to help me	1 = not at all 2= not 3 = normal 4= yes 5 = very much
	I get the emotional help and support I need from my family	
	I can talk to my family about my problems	
	My family will be happy to help me make some decisions	
	There are special people (friends, people around) around me who can help me in case of an emergency	
	I have a special person (friends, people around) who makes me feel comfortable	
	My friends and people around me really try to help me	
	I can rely on friends and people around me when things go wrong	
I have friends or people around me with whom I can share my joys and sorrows.		
I can talk to friends and people around me about my problems		

(R)= reverse question processing

2.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15차년도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2.0과 AMOS 25.0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첫째, 연구대상자의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구하기 위해 빈도분석, 평균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자료의 정규성 검토는 왜도와 첨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와 삶의 만족 사이에서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다중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hantom model 상에서 2,000개의 사례수를 설정하여 Bootstrapping을 적용하였다. 또한, Bootstrapping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결측치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결측값 대체를 반복적인 두 단계 기법인 EM(Expectation-Maximization)법을 적용하였다. 이와 동시에 다중매개효과 차이 검증을 위해 Preacher & Hayes[36]가 개발한 SPSS Indirect

macro를 사용하였다.

넷째,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인 χ^2 통계량, RMSEA와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인 CFI, TLI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RMSEA는 대표본이나 다수의 관측변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χ^2 통계량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지수로서 일반적으로 .05이하면 매우 좋으며, .08이하면 양호하고, .10이하면 보통인 것으로 판단한다[37]. CFI, TLI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90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간주한다[37,38].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전체 중장년 장애인 380명 중 남성은 233명(61.3%), 여성은 147명(38.7%)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6.97세(s.d.=6.371)이었으며, 교육수준은 무학 11명(2.9%), 초등학교 졸업 94명(24.7%), 중학교 졸업 70명(18.4%), 고등학교 이상 졸업 205명(53.9%)이었다.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은 199명(52.4%), 무배우자 장애인은 181명(47.6%)이었으며, 신체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음' 12명(3.2%), '좋지 않음' 110명(28.9%), '보통 정도' 112명(29.5%), '좋은 편임' 143명(37.6%), '매우 좋음' 3명(0.8%)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category	subcategory	frequency(%)
gender (n=380)	male	233(61.3)
	female	147(38.7)
age (n=380)	mean=56.97, s.d.=6.371	
education level (n=380)	no learning	11(2.9)
	elementary school	94(24.7)
	middle school	70(18.4)
	high school or higher	205(53.9)
spouse (n=380)	have	199(52.4)
	none	181(47.6)
Physical health (n=380)	not very good	12(3.2)
	not good	110(28.9)
	average	112(29.5)
	good	143(37.6)
	very good	3(0.8)

3.2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기술통계 분석을 하기 전 우울의 3가지 하위요인 값이 자료의 정규성을 만족시키지 않아 자연로그(log) 함수로 변환한 값을 투입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 결과 소득지위는 최소 0(일반 가구)부터 최대 1(저소득가구)까지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4816으로 저소득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삶의 만족의 3가지 하위요인은 최소 1부터 최대 5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2.9848~3.6333(s.d.=.5606~.6282)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3가지 하위요인은 최소 1부터 최대 5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2.8824~3.6697(s.d.=.8958~.9690)로 나타났다. 우울의 3가지 요인은 자연로그(log) 값으로 최소 -.37~-1.87부터 최대 .79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0784~-0.7595(s.d.=.3479~.7697)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변인들의 왜도(skewness)는 .074~-1.341의 분포를 보여 ± 2.0 ($p < .05$)를 벗어나지 않았고, 첨도(kurtosis)는 .026~2.817의 분포를 보여 정규성 기준인 ± 7.0 ($p < .05$)를 벗어나지 않아 정규성을 확보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39].

둘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측정변인 간의 관계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소득지위는 우울 3가지 하위요인($r=.154\sim.195$, $p < .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지지 3가지 하위요인($r=-.101\sim-.253$, $p < .01$)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매개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종속변인인 삶의 만족 3가지 하위요인($r=-.224\sim-.300$, $p < .01$)과도 부(-)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만, 우울 하위요인(dep_1)과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soc_sup_1, soc_sup_2), 삶의 만족 하위요인(life_sat_3)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우울 하위요인(dep_2)과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soc_sup_3) 사이, 우울 하위요인(dep_3)과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soc_sup_3) 사이,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soc_sup_3)과 삶의 만족(life_sat_2) 사이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독립변인 간의 상관계수가 .80 이상인 변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다중공선성(VIF)도 1.129~3.677(≤ 10)로 분포되어 다중공선성은 의심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Measured variable	N	Min	Max	M	s.d.	skewness	kurtosis
income level	380	0.00	1.00	.4816	.5003	.074	-2.005
life_sat_1	380	1.00	4.67	3.3030	.5894	-.746	1.301
life_sat_2	380	1.00	4.67	2.9848	.6282	-.192	.026
life_sat_3	380	1.00	5.00	3.6333	.5606	-1.196	2.817
soc_sup_1	380	1.00	5.00	2.8824	.9514	-.463	-.562
soc_sup_2	380	1.00	5.00	3.6697	.8958	-1.341	2.115
soc_sup_3	380	1.00	5.00	3.5315	.9690	-.976	.772
dep_1	241	-1.87	.79	-.7595	.7697	.259	-.417
dep_2	380	-.37	.79	-.0784	.3479	.933	-.094
dep_3	247	-1.25	.79	-.4023	.5724	.333	-.188

3.3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Fig. 1 참조)에 포함된 잠재변인인 우울,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의 각 측정지표들이 이론적으로 잠재변인의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Fig. 2. 참조). 다만,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저소득가구 여부)는 단일측정 지표로 구성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50.005$ (df=18, $p < .001$), CFI=.981, TLI=.962, RMSEA=.068로 확인되어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비교적 자료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측정모형의 분석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경로별 표준화된 요인부하량(β)이 .407~.926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만,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soc_sup_1)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50이하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soc_sup_1)의 C.R.(7.832, $p < .001$) 값이 유의하게 나타나 제거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또한, CR(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값은 .764~.892($\geq .70$), AVE(평균분산추출지수: 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은 .520~.735($\geq .50$)로 분석되어 집종타당성이 검증되었다[37].

3.4 구조모형분석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최종모형을 선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chi^2=82.123$ (df=24, $p < .001$), CFI=.967, TLI=.937, RMSEA=.080로 분석되어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가 확인되었다. 그 결과를 Fig. 3에 제시하였다.

Table 4. Correlation of measurement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	1									
2	.154 [†]	1								
3	.195 ^{**}	.725 ^{**}	1							
4	.172 ^{**}	.772 ^{**}	.705 ^{**}	1						
5	-.253 ^{**}	-.121	-.244 ^{**}	-.113	1					
6	-.172 ^{**}	-.070	-.114 [†]	-.106	.379 ^{**}	1				
7	-.101 [†]	-.042	-.012	.005	.331 ^{**}	.784 ^{**}	1			
8	-.224 ^{**}	-.195 ^{**}	-.270 ^{**}	-.105	.306 ^{**}	.219 ^{**}	.178 ^{**}	1		
9	-.300 ^{**}	-.159 [†]	-.251 ^{**}	-.192 ^{**}	.172 ^{**}	.125 [†]	.051	.571 ^{**}	1	
10	-.265 ^{**}	-.100	-.190 ^{**}	-.120	.065	.377 ^{**}	.340 ^{**}	.490 ^{**}	.472 ^{**}	1

1=income level, 2=dep_1, 3=dep_2, 4=dep_3, 5=soc_sup_1, 6=soc_sup_2, 7=soc_sup_3, 8=life_sat_1, 9=life_sat_2, 10=life_sat_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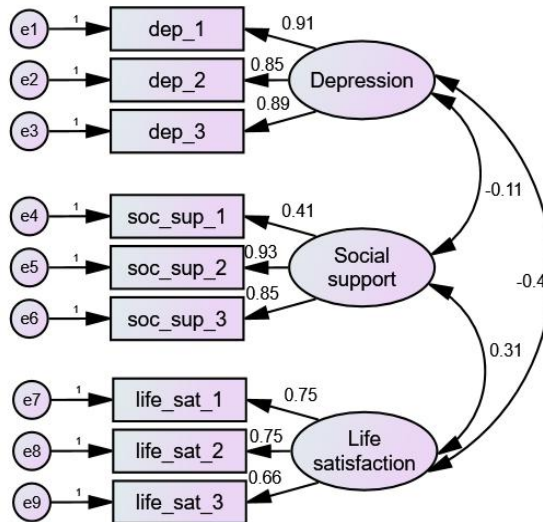


Fig. 2. Measurement model

Table 5. Measurement model analysis

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Estimate		S.E.	C.R.	CR	AVE
		B	<i>B</i>				
Depression	dep_1	1.203	.911	.050	24.117 ^{***}	.892	.735
	dep_2	.424	.847	.019	21.859 ^{***}		
	dep_3	1.000	.887				
Social support	soc_sup_1	.472	.407	.060	7.832 ^{***}	.794	.585
	soc_sup_2	1.011	.926	.067	15.059 ^{***}		
	soc_sup_3	1.000	.846				
Life satisfaction	life_sat_1	1.172	.753	.108	10.817 ^{***}	.764	.520
	life_sat_2	1.252	.745	.119	10.499 ^{***}		
	life_sat_3	1.000	.657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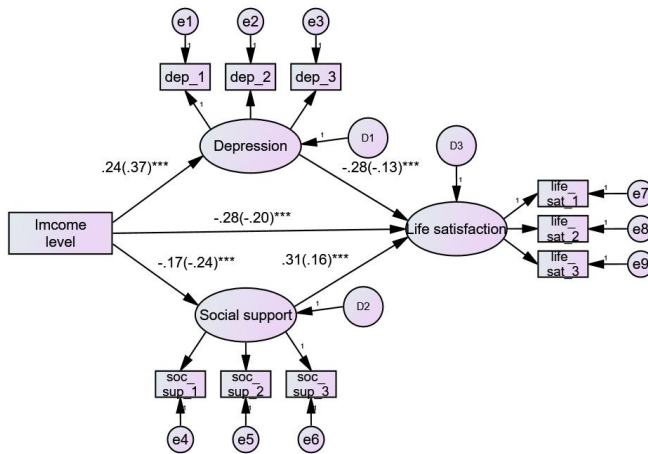


Fig. 3. Final model

본 연구에서 최종모형의 요인들 간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모수치 추정치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첫째,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는 우울($B=.241, p<.001$), 사회적 지지($B=-.167, p<.001$) 및 삶의 만족($B=-.277,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를 통해 [연구가설1, 2, 3]이 지지되었다. 즉,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가 저소득가구일수록 우울은 높아지고, 사회적 지지는 낮아지며, 삶의 만족도 낮아짐을 의미한다. 둘째, 중장년 장애인의 우울은 삶의 만족($B=-.282, p<.001$)에,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B=.038,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가설4, 5]가 지지되었다. 즉, 중장년 장애인의 우울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아질수록, 삶의 만족도 낮아짐을 의미한다.

Table 6. Final model analysis

path	Estimate		S.E.	C.R.
	B	<i>B</i>		
Income level → Depression	.370	.241	.085	4.380***
Income level → Social support	-.238	-.167	.071	-3.371***
Income level → Life satisfaction	-.202	-.277	.047	-4.335***
Depression → Life satisfaction	-.134	-.282	.038	-3.524***
Social support → Life satisfaction	.158	.038	.033	4.838***

3.5 다중효과분석

3.5.1 전체 매개효과분석

최종 모형의 전체 매개효과는 Table 7과 같다. 표준 회계수값을 확인한 결과, 총 효과는 -.3125, 직접효과는 -.2034, 간접효과는 -.1091로 나타났고,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하였다($BC=-.4057 \sim -.2192, p<.05$). 이는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사회적지지 변인이 미치는 전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Table 7. Total mediating effect on the final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Bias-corrected
Income level → Life satisfaction	-.3125	-.2034	-.1091	-.4057~-.2192*

* $p<.05$

주: Bias-corrected 95%confidence interval: Estimates are standardized coefficient coefficients

3.5.2 개별 매개효과분석

Amo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두 개 이상의 개별 매개효과의 각각의 경로에 대한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중매개효과의 개별경로에 대한 특정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40]. 본 연구모형에서 개별 매개효과를 확인해야 할 두 가지

매개경로는 첫째, (a) 소득지위(income level) → 우울 (Depression_p1) →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_p2)에 이르는 경로와 둘째, (c) 소득지위(income level) →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_p3) →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_p4)에 이르는 경로이다(Fig.4. 참조).

팬텀변화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chi^2=82.123(df=24, p<0.01)$, CFI=.967, TLI=.937, RMSEA=.080로 나타나 최종 구조모형의 적합도와 비교해도 같은 수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팬텀변수를 활용한 변환 모형은 통계적으로 최종 구조모형과 같음이 확인되어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다중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팬텀모형상에서 Bootstrapping을 적용한 분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동시에 Preacher & Hayes[36]가 개발한 SPSS Indirect macro를 사용하여 다중매개효과의 차이 검증을 추가로 진행 하였다 (Table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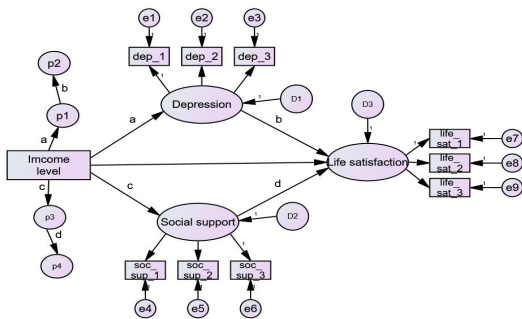


Fig. 4. Phantom model to verify individual mediating effects

첫째,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가 우울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639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간접신뢰구간은 -.0985~-.0351($p<.05$)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가설 6]이 지지되었다. 즉,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가 저소득가구일수록 우울은 높아지고, 우울할수록 삶의 만족은 더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둘째,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452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간접신뢰구간은 -.0837~-0.164($p<.05$)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95% 신뢰수준

에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가설 7]이 지지되었다. 즉,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가 저소득가구일수록 사회적 지지는 낮아지고, 사회적 지지가 낮아질 수록 삶의 만족은 더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셋째,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와 삶의 만족 사이에 우울과 사회적 지지 각각이 차별적인 영향을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두 간접효과의 차이(M1-M2)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두 변인의 간접효과 차이는 -.0187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간접신뢰구간은 -.0625~.0274($p<.05$)로 신뢰구간 내에서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연구가설 8]은 기각되었다. 즉, 두 매개효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우울과 사회적 지지 요인 중 더 우위에 있는 요인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두 요인 모두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Table 8. Validation of significance for individual parameter effects including phantom variables (unstandardization coefficient)

path	indirect effect	S.E.	Bias-corrected (LLCI ~ ULCI)
Income level → Depression → Life satisfaction(M1)	-.0639	.0162	-.0985 ~ -.0351*
Income level → Social support → Life satisfaction(M2)	-.0452	.0173	-.0837 ~ -.0164*
M1 - M2	-.0187	.0228	-.0625 ~ .0274

* $p<.05$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1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중장년 장애인의 우울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소득지위(일반가구, 저소득가구)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에 따른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질문1.]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는 우울($B=.241, p<.001$), 사회적 지지($B=-.167, p<.001$) 및 삶의 만족($B=-.277,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상태 좋을 수록 삶의 만족이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선행연구[25]를

다시 한번 뒷받침한 결과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0,21]에서 소득이 높은 경우 우울의 낮게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사이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41]와도 맥을 같이한다.

둘째, [연구질문2.]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가 삶의 만족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우울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3]에서는 자산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는 확인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소득지위와 삶의 만족 사이에서 우울이 미치는 매개효과에 영향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질문3.]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가 삶의 만족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장애로 인한 차별 및 소외감으로 인하여 우울감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족과 친구 등 주변으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감은 낮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이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18]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연구질문4.]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와 삶의 만족 사이에 우울과 사회적 지지가 다중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가 저소득가구일수록 우울은 높아지고, 우울할수록 삶의 만족은 더 낮아짐과 동시에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가 저소득가구일수록 사회적 지지는 낮아지고, 사회적 지지가 낮아질수록 삶의 만족은 더 낮아진 것을 검증하였다. 특히,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신체적 건강과 장애정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자신의 장애수용과 재활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자살 위험정도를 높인다는 선행연구[21,42] 결과에 비추어 시급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연구질문5.] 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와 삶의 만족 사이에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차이가 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우울과 사회적지지 각각의 효과의 차이가 없음이 검증되어 두 가지 매개요인 모두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연구의 함의와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가 저소득가구일수록 우울을 높이고, 사회적 지지를 낮춰 삶의 만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중장년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수준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소득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소득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자산이 우울감 및 자아존중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43]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장애인의 소득지위 향상을 위한 소득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동시에 중장년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장년 장애인의 우울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개입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지망의 확대를 통해 삶의 만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여부와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4,24]의 논의를 확장하여 중장년 장애인의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지지를 높이고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더욱이 노년기에 접어든 노령장애인의 경우 주변사람들로부터의 소외와 관계단절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현상[27]과는 달리 본 연구의 중장년 장애인의 사회적 지지는 평균 3.3612로 분석(Table. 3참조)되어 고령 장애인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장년 장애인이 거주지에 근접한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이용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비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우울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 공동체 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15차년도 의 특정시점에서 분석한 결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중장년 장애인의 우울,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둘째, 중장년 장애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장애유형, 취업여부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중장년 장애인

의 삶의 만족의 변화양상을 규명하기 위한 종단적 연구와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S. K. Kahng. (2011). *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Gyeonggi Paju: Nanam.
- [2] J. H. Park. (2012). The Influence of Depress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 aged males: A Moderating Effect of Problem Drinking. *Korean Journal of Social Research*, 33, 1-20. UCI : G704-002139.2012.33..008
- [3] S. K. Yoon. (2019). The Effect of Childhood Socioeconomic Status on Depression among Middle-Aged Adults in the Life Course Perspectiv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9(1), 200-229. DOI : 10.15709/hswr.2019.39.1.200
- [4] K. H. Hwang, S. H. Park, S. H. Cho & S. E. Choi. (2020).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middle-aged and senior citizens of Gyeonggi-do by city and county and support plan*.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5] Statistical Office. (2020). *2019 Results of 'Administrative Statistics for Middle-aged and Senior Citizens*].
- [6] J. Y. Jin & K. S. Ha. (2016). A Study on the Effects of Preparation for the Old Aged on the satisfaction of th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2), 45-57. DOI : 10.5762/KAIS.2016.17.2.45
- [7] E. J. Jang. (2017). *Effect of Aging Awareness and Health of Middle-Aged and Elderly Persons on Quality of Life - Centering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Dagu Hany University.
- [8] J. H. Lee. (2017). *Effects of Families' Characteristic, Perception on Old Age Life, and Social Support on Preparation for Later Life with the Middle and Older Age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Dagu Hany University.
- [9] S. M. Em. (2015). *Th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in retirement preparatio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middle-aged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Hoseo University.
- [10] S. K. Park. (2006). A Study on Social Integration of Person With Disabilities based on Independent Living paradigm: Life Spa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1), 237-264. UCI : G704-000330.2006.58.1.007
- [11] Y. C. Byun, S. H. Kim, S. Y. Yoon, K. J. Kwon, H. S. Cho, S. Y. Cho, J. G. Kang & S. H. Choi. (2006).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Life Cycle Perspectiv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12] G. J. Lee. (2008). Measures to Vitalize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by Working Life Cycle of the Disabled. *Seminar Resources for Vitalization of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by Working Life Cycle of the Disabled*,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6-40.
- [13] J. J. Lee. (2011). *Status and Tasks of Employment Support for the Disabled by Life Cycle*.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379-405.
- [14] J. H. Kim. (2017). A Study on the Changing Patterns of Economic Activity in Middle-Aged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27(3), 5-32. DOI : 10.15707/disem.2017.27.3.001
- [15] H. S. Lee & G. N. Ko. (2014). Determinants for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Focusing on Differences by Age Group.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5), 144-155. DOI : 10.5392/JKCA.2014.14.05.144
- [16] S. H. Roh. (2020). The Longitudinal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Exclus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Middle Old-age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49, 5-30. DOI : 10.1080/08832323.1980.10116754
- [17] Statistics Korea. (2020). *Life of the Disabled in 2020 Statistics*.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4028
- [18] Y. S. Kim, S. Y. Kim & M. K. Im. (2014).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Persons with Disability: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Data.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40(4), 51-62. DOI : 10.22900/kphr.2014.40.4.005
- [19] C. S. Kim, Y. R. Shin & S. H. Roh. (2017). Factors of Depression among the Disabled in Later Life: Comparisons of Middle Age and Old Age.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54, 77-96.

- DOI : 10.17939/hushss.2017..54.005
- [20] H. S. Jhon & S. K. Jahng. (2013).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redictors of Depression Trajectory amo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Multi-Group Comparisons Between 65 and over and 65 or Less Using Korean Welfare Panel Stud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7(2), 41-67. UCI : G704-001776.2013.17.2.009
- [21] C. M. Yoo. (2017). 10-Year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and Their Predictors: Inequity between People with without Disabilit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7(2), 150-183. DOI : 10.15709/hswr.2017.37.2.150
- [22] J. Y. Kim. (2020). Social Support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 *Social Welfare Policy*, 47(4), 33-58. DOI : 10.15855/swp.2020.47.4.33
- [23] J. Y. Kim & C. K. Han. (2017). The Effect of Disability of Household Head on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Asset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9(2), 247-269. DOI : 10.20970/kasw.2017.69.2.009
- [24] H. S. Kim & Y. S. Lee. (2014). Effects of Household Income and Employment Status on Leisure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Disabled. *Disability & Employment*, 24(4), 146-170. DOI : 10.15707/disem.2014.24.4.007
- [25] J. H. Kim, D. T. Lee & J. J. Lee. (2018). The Effect of Economic Situation on Life Satisfa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ediating Effect of Leisure Culture Activ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7(1), 415-440. DOI : 10.23944/jsers.2018.03.57.1.19
- [26] S. H. Roh. (2016). A Study on the Aging Phenomenon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Welfare of the Disabled,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216-220.
- [27] Y. R. Shin & K. M. Kim. (2016). On the Cross of Disability and Old Ag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8(4), 143-167. DOI : 10.22779/kadw.2018.39.39.5
- [28] D. U. Kang. (2010). Longitudinal Effects of a Disease/Disability on the Middle-aged & Advanced-aged Persons' Economic Status.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20(4), 207-235. DOI : 10.15707/disem.2010.20.4.009
- [29] S. M. Kim. (2015). The Effect of Social Stigma and Social Support on Accessibility to the Community Resources among Middle-Aged and Older People with Mental Illness: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Social Science Research*, 26(2), 227-249. DOI : 10.16881/jss.2015.04.26.2.227
- [30] C. S. Lee & M. S. Kim. (2014). The Employment Determinants through Comparison of Al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Employed and the Unemployed among Middle and Old Aged People with Disabilities.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24(3), 5-34. DOI : 10.15707/disem.2014.24.3.001
- [31] U. J. Choi, K. S. Park & S. H. Lee. (2014). A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Middle and Old Aged Disabled Women. *Disability & Employment*, 24(3), 123-146. DOI : 10.15707/disem.2014.24.3.005
- [32] L. S. Radloff.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DOI : 10.1177/014662167700100306
- [33] K. K. Chon & M. K. Lee. (1992).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CES-D*. Proceedings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37-435.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
- [34] G. D. Zimer, N. W. Dahlem, S. G. Zimet & G. K. Farley.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30-41. DOI : 10.11591/Edulearn.V11i1.5682
- [35] H. S. Choe. (1999). *A Study on the Predictor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Outcome for Persons with Schizophrenia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http://lod.nl.go.kr/resource/KDM200005452>
- [36] K. J. Preacher & A. F. Hayes.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DOI : 10.3758/BRM.40.3.879
- [37] J. P. Woo.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 concept and understanding*. Seoul: Han-Narae.

- [38] L. T. Hu & P. M. Bentler.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DOI : 10.1080/10705519909540118
- [39] P. J. Curran, S. G. West & J. F. Finch.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y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DOI : 10.1037/1082-989X.1.1.16
- [40] B. R. Bae. (2017). *Amos24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Cheongram
- [41] J. S. Lee & Y. J. Oh. (2011). Tes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visually impaired: focusing on a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27(4), 39-57. UCI : G704-001803.2011.27.4.003
- [42] W. G. Im & S. H. Whang. (2014). Causes of Suicidal Ideation of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Living in S-gu -Focusing on Their Daily Activities, Experience of Committing Suicide, and Depression-. *Stress(KSSM)*, 22(1), 35-42. UCI : G704-002182.2014.22.1.003
- [43] Y. U. Cho & K. H. Cho. (2014). The Study of Quality of Life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s Economic Capability: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Factor via Structural Equation Model Multi-Group Analysi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2), 276-309. DOI : 10.15709/hswr.2014.34.2.276
- [44] J. Y. Kim. (2019). The Effect of Poverty Status and De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y: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9(3), 148-178. DOI : 10.15709/hswr.2019.39.3.148

이 형 하(Hyoung-Ha Lee)

[정회원]



- 2000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4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다문화, 빈곤
- E-Mail : hhlee62@kwu.ac.kr